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건강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태신자 작정주일(1주)

오늘은 태신자 작정 주일로 지킵니다.

3. 경기서지방회 일일부흥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연합)

일시 : 2024년 10월 13일(주일) 저녁 7시

장소 : 세한교회 본당

강사 : 주진 목사(경기서지방회장, 세한교회 담임목사)

4. 애찬

오늘 애찬 불고기는 한누리교회 최귀순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합니다. 업종을 변경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현주식당> 사업장의 번영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5. 어린이 예배

매주 주일 오후 1~2시 어린이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6. 청소년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4~5시 청소년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7. 2024년 10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8.29 ~ 9.29)

10.05(토) 오수빈야비 10.13(일) 전진우야비 10.16(수) 이재아야비

10.29(화) 한효성 성도 10.27(일) 김막동 권사(-9.25)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10/13	태신자 작정 주일(2) 남녀전도회 권사회 일일부흥회 (세한교회, 저녁 7시)
10/20	태신자 작정 주일(3)
10/22	아허브코업 장기모임(주사랑교회) 경기서지방회 교역자 부부수련회 (인면도 휴양림, 오전 9시 출발)
10/27	종교개혁주일 선교한신의 주일 추수감사절 성전 장식 시작
11/01	다나엘 21일 기도회 (11/1-21일) 첫날맞이 일사예배 (성찬예식)
11/03	태신자 초청의 주간(1)
11/05	아허브코업 장기모임(주사랑교회)

주일 사랑 운행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탑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탑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시각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 10/13 다함께
- 10/20 임명숙 집사
- 10/27 김혜숙 권사
- 11/03 정애자 권사
- 11/10 박재연 집사
- 11/17 이광근 안집사
- 11/24 임명자 집사



주사랑 7권 41호 | 2024년 10월 13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 후 스물한 번째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태신자작정주일(2)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나엘 12:3)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00분 **태신자 작성주일(2)** 인도: 집례자

※ **목도** **은 4:10~11** **인도자**

※ **찬송가** **찬 305장** **다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사도신경** **다같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같이**

성서교독 **No.72 이사야 58장** **인도자/회중**

찬송가 **찬 304장** **다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대표기도 **합심기도**

성경봉독 **창세기 18:22~33 (구약 22)** **인도자**

광고 **인도자**

말씀인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한승훈 목사**

봉헌찬송 **찬 505장** **다같이**
(헌금위원 : 이재우 어린이)

※ **축도** **한승훈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언금함에 넣어주세요)

십일조 : 이광근박제연 한은총 한희락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한승훈 / 임명숙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이재아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감사헌금 : 고도열 김혜숙 이광근박제연 전복순 한승훈 임명순
월삭감사 : 이광근박제연 한성결 한은총 한승훈 임명순 한희락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선교헌금 : 이광근박제연 임명자
건축헌금 : 이광근박제연
차량헌금 : 나승원 정영미
후원헌금 : 경기서지교회 독지교회 소망세광교회 오복상방애경 희명찬교회
 박미단 조은교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국내선교(선한총성교회) 	국내선교(오주교후흥스쿨) 	해외선교(모로코) 	해외선교(타지키스탄)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	---	---	---	--

통일선교 비전기도회

오후 1:0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대표기도 **말은 이**
성경봉독 **열왕기하 12:1-21 (구 582)**
말씀제목 **변절의 이유**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성경봉독 **히브리서 1:4-14 (신 353)**
말씀제목 **약속의 시대에서 살책의 시대**

목요 구역 기도회

오후 2:00 **경배와 찬양** **구역별 찬양**
성경봉독 **왕상 13:11-34 (구 537)**
대표기도 **말은 이**
말씀제목 **불의를 대하는 자세**

금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성경봉독 **열왕기하 15:23-28 (구 581)**
말씀제목 **인생의 성공과 실패 요건**

새벽 기도회

새벽 5:30 매일성경 (월~금)

13일일 왕하 12:1-21 변절의 이유
 14일월 왕하 13:1-13 좌가만저지 허타는 은혜
 15일화 왕하 13:14-25 약지 가대 쉼해야 할 것
 16일수 왕하 14:1-16 반쪽의 산을 쪼갬찬다
 17일목 왕하 14:17-29 하나님의 은혜 백성의 믿음
 18일금 왕하 15:1-22 야략 쓰랴 그때까지
 19일토 왕하 15:23-38 양회 성공과 실패 요건
 20일일 왕하 16:1-20 생황을 너져 주을 선택하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 ⑦ 예루살렘 귀환을 위해 일어난 모든 사람의 계수의 총계는 얼마인가요? 숫자로! (스 2:64-67)
 온 회중의 합계가 ()명이고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명이고 말이 ()명이고 노새가 ()명이고 낙타가 ()명이고 나귀가 ()명이었다
- ⑧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무엇인가요? (스 3:2-6)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을 지켜 ()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와 ()와 여호와와 모든 거룩한 ()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를 드렸으나 그 때에 여호와와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 상번제(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번제), 월삭예배(초하루 번제), 절기의 번제
- ⑨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가요?(스 3:12-13)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 ⑩ 성전 재건축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훼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스 4:3-4)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 ⑪ 사마리아인의 길고도 집요하고 포괄적인 성전 건축 방해와 모함은 얼마나 지속하나요? (스 4:5-6)
 바사 왕 ()의 시대부터 바사 왕 ()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 ⑫ 주변국의 오랜 방해로 15년간 중단 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린 바사 제국의 왕은 누구인가요? (스 5:6)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환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 ① **요시아의 아들로 남 유다의 제17대 왕이며 애굽의 외교를 적극 반대했다가, 즉위 3개월 만에 폐위된 인물은?**(대하 36:2-3)
()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삼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 ② **애굽의 바로 느고가 죽인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세운 남유다의 18대 왕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종으로 쇠사슬 묶여 끌려간 왕은?**(대하 36:5)
()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 ③ **남유다 제19대 왕으로 8세에 즉위해 40일 동안 통치하다가 폐위된 왕은?**(대하 36:9)
()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팔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 ④ **남 유다의 20대 마지막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어 패망을 이끈 왕은?** (대하 36:11)
()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리며
- ⑤ **바사의 왕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지 70년이 될 때에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건축을 명한 인물은?**(대하 36:22-23)
바사의 ()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 ⑥ **데와 바사를 통일한 고레스 원년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포로 된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고레스를 감동하여 지시한 명령은?**(스 1:2-3)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 ⑦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성전건축을 위하여 가장 먼저 일어난 지파는?**(스 1:5)
이에 ()와 ()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를 시작한 선교사는 대표적으로 3인을 들 수 있는데, 1832년의 귀츨라프 선교사, 1865년 토마스 선교사, 1884년 매클레이 선교사입니다. 이들의 일시적 방문은 조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귀츨라프 선교사는 <감자>를 남겼고,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했으며, 매클레이 선교사는 <선교 관련 사업>에 대해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는 귀츨라프(곽실렵-郭實獵) 선교사입니다. 귀츨라프 선교사는 1803년 7월 8일 독일 포메라니아 프리츠에서 출생했습니다. 1821년 베를린신학교에 입학했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1823년 네덜란드로 가서 1826년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928년 메드허스트 선교사의 태국 선교를 제안 받고 태국으로 옮겨 중국선교를 목표로 중국인 쿠오(Kwo)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귀츨라프 선교사는 성경을 최초로 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1831년 6월 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선박을 타고 12월까지 약 6개월간 중국 해안을 따라 라오닝성까지 갔는데, 마카오로 오는 1차 선교여행을 마치는 과정에 중국 선교사로 정착했습니다. 1832년 2월 영국동인도회사의 로드 애머스트호(Lord Amherst) 편으로 통역 및 의사 직책의 선교사로 승선을 했고, 2차 선교여행으로 마카오에서 출발하여 상하이, 산둥 반도를 거쳐 1832년 7월 17일 <조선의 황해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귀츨라프 선교사는 황해도 몽골포 앞바다에 정박하여 김대백(金大伯) 등 어부를 만나 필담을 하고 전도책자와 단추 등을 선물했습니다. 몽골포에서 7월 17~18일 두 번 상륙하여 주민들과 관리들을 만났지만, 위협을 당하고 남쪽으로 쫓겨납니다. 7월 21일 외연도를 지나 7월 23일 녹도 앞바다에서 녹도 주민들의 초청으로 마을로 가서 대접을 받았지만 의사소통은 못했습니다.

이후 귀츨라프 선교사는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18박 19일 동안 원산도에 정박했고 선박 책임자였던 린지(Lindsay, Hugh, H.)와 함께 다음과 같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 ① 체류기간 동안 선박을 개방하고 전도책자를 나누어 줌.
- ② 7월 26일 국왕에게 올릴 교역청원서, 성경 등의 책자와 예물을 수군우후에게 전달.
- ③ 7월 27일 한문 주기도문을 조선 관리(Yang yih)의 도움을 받아 한글로 번역.
- ④ 7월 30일 감자를 씨감자로 심어주고 재배법을 알려줌. 김창한의 원저보(圓躋譜, 1862)에 고증되고, 알렌 선교사(Allen, Horace N.)의 "Korea Fact and Fancy"에 기록된 한국 최초의 감자 도입 역사가 됨.
- ⑤ 7월 31일 넓은 들판을 보고 포도재배법과 포도즙제조법을 알려줌.
- ⑥ 8월 2일 노인들에게 하루에 최대 60명까지 감기약을 나누어줌.
- ⑦ 8월 7일 천수만과 간월도를 탐사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함.
- ⑧ 1834년 "The Journal of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1832 and 1833 with Notices of Siam, Corea, and the Loo-Choo Islands"를 발간하여 조선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김.
- ⑨ 귀츨라프는 "좋은 날들이 조선에 오기를 소망"하고 축복기도를 한 후, 8월 17일 제주도를 지나 오키나와를 거쳐 1832년 9월 마카오에 도착함으로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함.

구역예배 • 가정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운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1107	제사장 엘리	삼상 1~4장
찬송가찬 515장.....	다 같이	1069	사사 삼손	삿 13-16장
대표기도	말은이	1067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삼상 1~8장
성경봉독왕상 13: 11~ 19.....	말은이	1043	사울의 통치 (~BC 1011)	삼상 10-31장
말씀인도시대를 영 분별하자.....	말은이	1011	다윗의 통치 (~BC 971)	삼하2-왕상2
합심기도	다 같이	971	솔로몬의 통치(~BC 931)	왕상 1~11장
헌금기도찬 516장.....	말은이	931	북조 1대 왕 여로보암(BC 913)	왕상 11장
주기도문	다 같이	931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상 12장

■ 들어가는 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에 대해 진노하시며 선지자를 보내어 이 문제를 수면위로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과 징조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선지자를 대접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하고 바로 유다로 돌아가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엘의 선지자로 인하여 이 사건이 확대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11~12).

베엘은 야곱 이래로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때문에 베엘을 중심으로 하는 선지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를 드리며 선지자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베엘에 금송아지를 두고 신당을 지었을 때, 이들은 아무런 비판하지도 않았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건대 베엘의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꿈으로나 이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엘에 사는 선지자의 특징은 '늙었다'는 점입니다. 늙었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은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왕 앞에서 행한 모든 일과 말씀을 아버지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보고 들은 일이 너무 놀랍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지 궁금했기에 선지자인 아버지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전한 말들은 곧장 아버지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온 선지자를 찾아가 왕과 똑같은 잠자리와 음식을 제안합니다(7절).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요 4:23)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예배의 특징은 보이는 형상 금송아지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요 4:24). 영이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요 4:25~26).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영분별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집요하고 간계한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13~17).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한 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그리고 떡을 먹어라’고 권유가 아닌 권위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한 어투입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유대의 선지자는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거절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거절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로 친밀감을 조장하고 경계를 낮추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치밀하게 준비한 거짓말로 자신의 제안을 따르도록 설득합니다. 선지자가 상대 선지자를 거짓으로 시험하고, 또 선지자가 사람의 거짓말에 넘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광명한 빛의 천사로 위장해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고전 11:14).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세속적인 축복을 거짓말로 위장하며, 탐심과 정욕으로 마음을 미혹하고, 온정적인 인간관계로 죄악에 눈을 감게 만듭니다(딤후 4:2~4). 바울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딤후 2:15). 진리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성도가 됩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18~19).

늙은 베엘 선지자는 ‘천사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전달 내용은 조금 전에 자신이 명령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유대의 선지자가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전히 뒤집는 말입니다. 유대의 선지자는 ‘천사의 말’이라는 말에 미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의 말은 동일시 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 미혹된 마음은 유대에서 온 선지자를 완벽하게 속게 만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망각하고 사람의 인정과 친절 때문에 가야하는 사명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들의 떡을 먹고 그들의 물을 마셨습니다. 확고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주위의 말을 의심 없이 수용했다는 점은 선지자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와가 사탄에게 속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베엘의 선지자의 첫 번째 제안도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인정에 속고 관계에 속아 불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해 들은 불분명한 예언을 더 신뢰했습니다. 명백하게 상충된 예언을 들었음에도 확인해보지도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자신이 선택한 불순종의 길이 죽음을 몰아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순종만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 결론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여로보암의 교만함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남아 있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마저 사악한 악마의 장난에 놀아나 몰락하니, 절망스러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힘을 합하여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선지자들의 모습이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그만큼 죄로 어두워진 시대였으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분별력이 있는 선지 영성만이 공동체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부패한 세대와 어그러진 시대 속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와 말씀의 분별력 그리고 철저한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